



운전교육은 생명교육 발리발리보다 안전이 우선

한국교통장애인협회 사무총장 이기도

간소화면허=인명경시 운전 교육시간 늘려라

이기도 사무총장은? ▲일본체육대학 및 동 대학원 졸업 ▲1981~1990년 일본 태권도 국가대표 코치 역임 ▲2010년~현재 한국교통장애인협회 사무총장

한국교통장애인협회 이기도 사무총장은 운전면허시험제도 간소화 이후 교통사고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충분한 운전교육과 철저한 평가에 의한 면허발급제도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초보운전자에 의한 사망자수 큰 폭 증가 도로주행 노선 확대 등 면허시험 손봐야 시뮬레이터? 도로를 오락장으로 만들어

교통장애인 160만 명...교통안전 후진국 줄임·음주운전·운전 중 DMB 시청 추방

“우리나라 운전면허 의무교육시간은 터무니없이 부족하고, 시험은 변별력이 없다.”

(사)한국교통장애인협회 이기도(58) 사무총장의 말은 단호했다. 한국교통장애인협회는 1990년에 설립된 국토교통부 산하의 장애인 단체이다. 전국 14개 시·도 협회와 81개 시·군·구에 지회를 두고 있으며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장애인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 총장은 교통사고로 인해 장애인이 늘어나고 있다며 운전자와 보행자의 교통질서의식 결여, 정부의 효과적인 교통정책 부재, 인사와 운전자 처벌에 대한 관대, 음주운전, 운전 중 DMB 시청과 함께 운전면허 교육체계의 간소화를 교통사고 증가의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서울 영등포구 영종로의 한국교통장애인협회 사무실에서 이 총장을 만나 현행 운전면허 교육 및 시험제도에 대한 생각과 협회의 주요 사업에 대해 들어 보았다.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인의 수가 늘어나고 있다

고 했는데요.

“그렇다. 현대사회에서 자동차가 사회·경제뿐만 아니라 개인의 생활에서도 꼭 필요한 교통수단의 역할을 하게 되면서 교통사고 피해도 천문학적인 숫자를 기록할 정도로 늘고 있다. 최근 10년간 발생한 교통사고로 후유장애인이 된 사람이 42만명, 현재 교통장애인의 전체 통계는 약 160만명을 넘기고 있다.”

-해외의 경우와 비교하면 어느 정도인가.

“우리나라는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이고, 세계 5위의 자동차생산국이지만 매년 약 5300여 명의 교통사고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차량 1만대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6명에 달한다. 이는 OECD국가 평균에 비해 2배나 높은 수준으로 이른바 ‘교통안전 후진국’이다.”

-교통사고 증가의 원인 중 하나로 운전면허 교육시간과 시험제도를 꼽았는데.

“우리 협회는 지난 2011년 정부가 운전면허시험제도를 간소화할 당시 국회의사당 오후 5시경에 긴급히 회의를 열고 간소화에 의한 면허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살인면허라고 강력하게 항의했었다. 현재 우리나라는 OECD회원국 중 최악의 교통지표를 갖고 있음에도 운전 교육시간은 OECD국 평균인 50시간의 4분의 1에 불과한 13시간뿐이다. 장내기능의무교육은 2시간으로 평가 항목은 정차상태에서 기어변속, 전조등·방향지시등 켜기, 앞 유리창 닦기 여부와 50m를 주행하며 안전벨트 착용, 차로준수, 돌발상황에서의 급정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전부이다. 안전을 최우

선으로 두고 수립되어야 하는 운전면허 관련 기준이 운전면허 취득비용을 줄이자는 명분으로 교육시간을 80%나 축소하고, 장내기능평가항목을 11가지에서 3가지로 축소한 것은 인명경시풍조라는 우리 사회의 일그러진 단면이 현실화된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운전면허 교육 및 시험제도 간소화가 실제로 교통사고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과거 10년간 점진적으로 감소되어 오던 교통지표가 운전교육시간이 대폭 축소되고 시험이 쉬워진 후 2012년에 악화되 반전됐다. 특히 전체 운전자들이 유발한 사고의 사망자수가 증가분보다 초보운전자에 의한 사망자수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운전교육을 충분히 받지 못해 면허를 취득하더라도 실제로 도로에서 운전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초보운전자들이 많다고 한다.

“터무니없이 부족한 교육시간과 변별력없는 시험으로 기초적인 기술조차 숙지하지 못한 운전자들이 실제 도로로 유입돼 도로를 운전 연습장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자신의 생명은 물론 주변 운전자, 보행자 등 전 국민의 생명을 위협에 빠뜨리고 있다.”

-운전면허시험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생각은.

“운전자가 실제 도로로 유입되기 전에 충분한 교육과 철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나라와 같이 교통량이 많고 도로구조가 복잡한 국가에서 실제 도로의 축소판인 장내기능 교육장은 매우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교육장

이다. 그러나 현행 제도에서 장내기능교육시간은 2시간뿐이고 그나마 내용이 너무 단순하다. 도로주행 시험노선도 확대해야 한다. 신규면허취득자들이 노선을 외워서 또는 요령만으로 면허를 취득할 수 없도록 현재의 4개 노선을 더 늘려야 한다고 본다. 또 한 가지, 컴퓨터 시뮬레이션 연습만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고 선전하는 행위를 철저히 처벌해야 한다. 시뮬레이터는 가상현실로 수많은 교통환경과 복잡한 자동차의 움직임을 아직까지 구현하지 못한다. 좀 더 정교해진 오락기일 뿐이다. 시뮬레이터 시험을 할 때 보면 사람들은 평소보다 과속을 하고 화면에서 사람을 치어도 아무렇지 않아 한다. 이런 시뮬레이터라는 오락기로 연습만 하면 된다는 관련 단체들의 선전은 도로를 오락장으로 만드는 것과 다름없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협회가 하는 일은.

“졸음운전, 음주운전, 운전 중 DMB 시청과 같은 ‘교통사고 3악(惡)’ 추방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1초의 DMB 시청은 70km 속도로 운전하는 경우 눈을 감고 20m를 주행하는 것과 같다. 지난 7월 2일 국회는 운전 중 DMB 시청이 과속이나 교차로 신호위반에 준하는 과실이라고 보아 앞으로 20만원 이하 벌금 및 벌점 15점을 적용키로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들이 ‘교통사고 3악’을 추방하기 위해 모두 힘을 합친다면 교통사고를 매우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양형모 기자 rani361@donga.com 트위터 @rani361

●류재연 전국자동차운전전문학원연합회 경남협회장

“운전면허 제도 수출도 했지만 간소화 이후 참으로 부끄럽다”



“현행의 우리나라 운전면허 제도는 한 마디로 포퓰리즘 제도이다. 참으로 부끄럽고 우습다.”

전국자동차운전전문학원연합회 류재연 경남협회장(사진)은 우리나라 면허제도에 대해 날선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류 회장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의 면허제도 간소화 이전

우리나라 운전면허제도는 그 우수성을 인정받아 러시아, 중국, 동남아 등에 시스템을 수출했을 정도였다고 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한 채 오직 정권의 인기와 편익적인 논리에 정책의 중심을 두고, 다수의 국민과 단체의 반대·시위에도 불구하고 아집과 고집으로 시행된 지금의 면허제도는 한마디로 편익이라는 논리에 안전이 증발되어 버린 것이 아닌가 싶다.”

●우리나라 운전면허제도는 생명·안전 무시한 최악의 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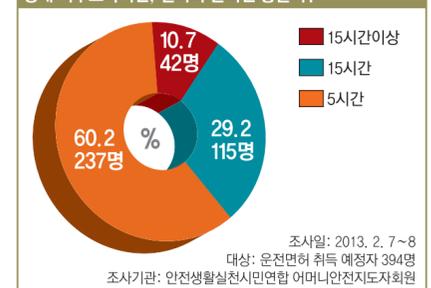
류 회장은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OECD국가 중 꼴찌를 다투는 부끄러운 현실 속에서 가장 중요한 운전 기초 장내기능교육이 불과 2시간, 여기에 50m 직진으로 시험을 치르고 도로주행을 하도록 허가해 주는 나라는 찾아보기 어려울 것”이라며 분개했다.

또한 류 회장은 운전면허시험을 관리하는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시험장의 시뮬레이터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도로주행시험의 사전경험을 위해 안전의식이 결여된 오락기에 불과한 시뮬레이터로 도로주행 연습을 하도록 하고, 시험에서 합격할 수 있는 요령을 미리 숙지시켜 응시자를 합격시키는 것이 합법적인지 관계부처에 묻고 싶다. 또 이를 위해 안달하는 국가 운전면허시험장의 행태에 개탄한다”고 말했다.

류 회장은 이어 “현행의 운전면허제도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무시하고 외면한 최악의 정책”이라며 “지금이라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정책으로 환원하기 위해서는 보다 현실적이고 사실에 근거한 올바른 제도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부처나 정책 입안자들이 전문가, 관계자들의 의견을 긍정적으로 수렴하고 보다 과학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 진정성있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형모 기자

그래픽으로 보는 운전세상

장내 의무교육시간, 얼마나 늘리면 좋을까?



편집 | 고희영 기자 ico@donga.com 트위터@mkh2357



블랙라이언 7부바지

품값은 긴바지, 가격은 반바지 값

바지가격이 속으로 태풍이 분다, 지구상 가장 시원한 반바지 여름에는 반바지가 최고다. 하지만 밑단이 무릎 위로 올라오면 좀 그렇다. 그래서 일반인이 가장 많이 찾는 것이 무릎 아래까지 내려오는 7부 바지다. 100% 최고급 면으로 만들었다. 승무 원들이 입었던 이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카고바지(긴바지) 스타일이지만, 허벅지 주머니를 제거했다. 힙 주머니는 플랩을 달았다. 가로 세로 15cm가 넘어 웬만한 휴대폰이나 수첩은 다 들어간다. 옆 주머니는 깊이가 25cm를 넘는다. 주렁주렁 주머니가 싫다는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7부 바지다. 허벅지 주머니가 없어도 모든 소지품을 소화할 수 있는 크기다.

집안에서 입으면 집 분위기가 달라진다

컬러는 화려하지는 않지만 아주 자연스럽다. 카키, 스카이블루, 오렌지, 다크 네이비, 진베이지 등 4종이 모두 매력적이다. 이 컬러에 면 100%의 자연적인 촉감을 더하면 삶 자체가 자연이다. 등산이나 낚시, 조깅을 할 때도 입을 수 있지만 집에서 입으면 기분이 업 되고, 집

분위기가 확 바뀐다.

100% 면이지만 젖어도 처지지 않고 달라붙지 않아

금속 버클에 헴프 벨트다. 카고바지와 같다. 버클 솔더를 고정 시켰다. 벨트는 아래 위 검은 색으로 염색을 했고 가운데 흰색 바탕에 바지 컬러와 같은 색을 넣었다. 면 100%이지만 물에 젖어도 축 처지거나 달라붙지 않는다. 카고바지처럼 얇고 가벼운 고기능성 바지다. 500분 한정 벨트 무료 증정



스카이블루

다크 네이비

오렌지

카키

5월 신상

제품명 블랙라이언 7부 바지
사이즈 30 · 32 · 34 · 36 · 38
40 · 42 · 44 (단독 세탁)
*일부 사이즈 조기 매진 될수있음.
회원특가 1장 25,000원 2장 39,800원 (택배비 별도)

제품신청 1544-0247
쇼핑몰 www.blacklion.co.kr